이재영(초선의원 시절 비서) 1차 구술

1. **구술자**: 이재영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10월 18일
5. **구술장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기테크노파크
6. **구술분량**: 05분 19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초선의원 시절 노동법 개정과 국정감사 활동

구술자 : 그러니까 노동법 개정 간 게(추진한 게) 이 노동법이 어떤 게 과연 노동자들에게 좀 제일 문제냐. 이게 어쨌든, 당이 야(野)삼(3)당이 돼놓으니까 야삼(3)당을 갖다가 뭉치면 여당보다 많고. 근데 인제 공화당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평화민주당하고 통일민주당 이 두개만 이야기돼갖고 어쨌든 평민당에는 이해찬 의원이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노동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뭐 공화당이라는 것은 이쪽(여당)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야당이지 협조, 공조가 안 되는 거라 인제. 그럼 노동법 개정을 한다, 라고 하면 이 빠타(barter)를 해야 된다고 인제. 어느 조항은 뭐 이렇게 포기하고 '느그(너희) 요구대로 해줄게 요 조항은 요대로 하자' 뭐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인제 어떤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일 중시해서 그거를 저해하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가, 그러니까 노총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근로기준법 향상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고방식이. 그게 어쨌든 간에 무슨 근로조건의 향상 이쪽이 인제 노동조합이 할 일이다, 이래 생각하니까 노동법 개정도 그쪽에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근데 어쨌든 자주적 단결권이 제일 중요한 거 같다, 라는 게 내 생각이고 노 변호사님도 거의 그런 거 하면 토론을 많이 하니까 인제. 자기도 맞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인제 빠타(barter)를 하면 자주적 단결권 쪽에 침해 요소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삭 삭제해서 이렇게 하고, 딴 거 무슨 돈 문제 이런 거 갖고 이런 거 있으면 그거는 양보하고. 서로 빠타(barter)할 거는 빠타(barter)해버리고 그렇게 노동법 개정을 했었습

니다. 그때가 아주, 그 당시 노동법이 아주 좋은 노동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좋은 노동법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죠. 그게 하여튼 모든 오만(온갖) 일을 다 하셨지만 하여튼 노동법 개정 관계 때문에 어쨌든 국회는 법 만드는 데니까 그게 제일 중심이었죠.

면담자 : 노동법 개정 말고 또 국정감사 다니신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구술자 : 그러니까 동네[1]마다 돌아다니니까요 인제. 일정이 쭉 있으면 동네, 부산 간다 그러면 부산노동청 갔다가 노동위원회 갔다가 뭐 그 두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건 뭐 국정감사야 그냥 질의하고 뭐 이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제 대안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젠데 그냥 폭로성 그건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안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이건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진 사례가 있다. 이거 어쩔래. 이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국정감사는 그 동네마다 인제 지적하는 거니까 그걸 인제 나중에 쭉 전체적으로 법 개정을 해야 될, 제도개선 안에서 이 동네 오니까 이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삼고. 폭로성은 거의 안 합니다. '그거 하기 싫다, 그거는 다른 사람 넘겨주라' 그러셨어요. 저희들이 인제 짜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하면 질의 내용을 짜거든요. 그럼 우리가 질의할 게 뭐 우리는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찰을 간다 이러면은 막 각, 곳곳에서 연락이 들어옵니다. 제보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또 우리는 노동조합하고 연결이 잘 돼있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막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딱 준비가 엄청나게 돼있죠 인제. 그러고 인제 저희들이 배부를 해줍니다. 이거는 폭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쭉 나눠주고, 이건 나눠주고, 또 돌라(달라)하면 몇 개 주고 인제. 그 보좌관들하고 친하니까 인제. 폭로도 좋은데. 그 인기가 높아집니다.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이렇게 잘 아세요, 그걸 갖다가. 인제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갖다가 딱 받을 수 있는가를 아세요.

그런데도 인제 카메라 받기 위해서는 탁 폭로하는, 그게 탁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인기 위주로 가갖고는 (안 된다).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일치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죠 인제. 그래 안 하는 거는 나눠주라고 (그러시고). 국정감사 이래 다니면 딱 옆에 앉아갖고는 계속해서, 인제 답변할 때 거짓말하면 바로 챙겨갖고 딱 갖다 드리고 이러면 마 작

1) 피감기관을 말함.

살을 내거든요. 그러면 마 이게 법, 이 법률, 반대심문을 갖다가, 반대심문 이런 걸 많이 해봐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딱 반대심문 참 잘해요. 그래 갖고는 삭 말 끌어 잡아내갖고는 막 완전히 항복 받아내고 이런 거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한번 돌고 나니까. 그래서 생각 있는 공무원들은 아주 좋아했죠. 아,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법이, 이 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 잘못도 아니라 이거는. 물론 이제 시행 상에서 공무원 잘못한 이런 거는 지적해내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지만 워낙 뭐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61. 부산 출생
1979.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1979. 연세대학교 상경대 경영학과 입학

1985. 부산 북구 소재 ‘세화상사’노조 총무부장 역임, 해고
198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노동문제대책특별위원회 대표간사
1988. 부산노동문제연구소(소장 노무현 변호사) 대표간사
1988. - 1990. 국회의원 노무현 비서
1990. - 1993.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 내 노동법률상담소 근무
2002.12 - 2003.02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
2003.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 제도개선 기획단 총괄반 담당위원

부산상고 후배로 학창시절 동문 선배 자격으로 특강을 온 노무현 변호사를 본 적이 있다. 1985년 3월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맡은 최초의 노동사건인 ‘세화상사’ 노조 해고자로 다시 만났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정치 입문 이후 출마 때마다 선거운동을 도왔다. 초선의원 시절에는 노동문제 담당 비서로 상임위 활동을 보좌했으며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했다.